

建國說話와 天命思想

——李成桂・朱元璋 說話를 中心으로——

李 慶 善*

- | | |
|-------------------|---------------------|
| I. 머 리 말 | IV. 龍飛御天歌에 投影된 天命思想 |
| II. 李成桂・朱元璋 說話 | V. 古典小說에 나타난 天命思想 |
| III. 天命思想의 歷史的 考察 | VI. 맺 는 말 |

I. 머 리 말

우리 나라에는 지난 날 慕華思想에 젖어서 터무니없이 民族 固有의 것도 모두 中國것으로 몰아부치려는 생각을 內包하고 있는 說話가 상당수 있으니, 그 대표적인 것들이 國祖說話(가령 箕子傳說 같은 것) 또는 創姓始祖說話들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가령 <三國史記>에,

金庾臣 王京人也 十二世祖 首露 不知何許人也 以後漢建武十八年壬寅 登龜峯 望駕洛九村 遂至其地開國 號曰 加耶 後改爲金官國 其子孫相承 至九世孫仇亥 或云仇次休 於庚信爲曾祖 羅人自謂少昊金天氏之後 故姓金 庚信碑亦云 轅轅之裔 少昊之胤 則南加耶始祖首路與新羅同姓也⁽¹⁾

라 하였고, 高句麗의 創業主 高朱蒙을 高辛氏의 後裔라고까지 附會・自滿하였다. 尤甚한 것은 率居를 唐人 僧瑤의 變姓名이라 한 다음과 같은 기록이다.

昔新羅三十二 神文之世 有木自東海而來 入于開雲浦 東流七日 于時適有唐人僧瑤 來入國中 改名率居 畫物生靈 信向者衆矣⁽²⁾

이러한 事大主義의 妄想에 대하여 오히려 中國人이 편찬을 주었던 行傳이다. 즉, 金寬毅의 <編年通錄>에서 高麗 王室 系譜를 記述하는 가운데, 聖骨將軍(虎景大王)이 康忠을 낳고, 康忠이 伊帝建과 寶育을 낳고, 寶育이 딸 辰義를 낳고, 辰義가 海東으로 잠시 遊覽은 唐 肅宗(閔

* 漢陽大學校 教授(文壇), 國文學

(1) 三國史記 卷第四十一 列傳 第一 金庾信上

(2) 槿城書畫徵 所收 栢栗寺重修記

濱에 의하면 宣宗을 만나 作帝建을 낳고, 作帝建이 龍建을 낳고, 龍建이 太祖(王建)을 낳았다고 하였으니, 이 기록을 準信한다면 高麗의 先祖는 唐人인 셈이다. 그리하여 麗末 忠宣王이 元나라에 갔다가 高麗의 祖上이 唐 肅宗임을 자랑했다가, 이 이야기를 들은 漢人의 翰林學士로부터 肅宗은 어려서 外遊한 일이 없고 安史亂 중에 곧 即位했는데, 어느 틈에 高麗에 가서 아들까지 낳았겠느냐고 反駁을 당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事大慕華主義者에 대한 頂門의 一針이었던 셈이다.

한편, 이와는 전연 對極적인 경향의 說話들도 있으니, 中國 歷史上의 人物로서 그 本生이 中原이 아닌 韓半島로 傳來되고 있는 것들이 그러한 例다. 箇中에는 滄海力士의 경우와 같이 文獻의 湮滅로 이제 와서는 전혀 上考할 수 없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壬亂後 來援하였던 李如松의 경우와 같이 訛傳되 경우도 있다. 원래 李如松의 先代(李英 혹은 李成樑)에 中國으로 歸化해 갔던 까닭이다.⁽³⁾ 그러므로 李如松에게 朝鮮人의 피가 흐른다고 하면 혹 모르지만 그를 곧 朝鮮人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는 마치 德水 張氏가 아랍系라고 해서 아랍人이라고 하는 論理가 성립될 수 없는 것과 같다.

民間傳承에 의하면 金·明·淸의 太祖가 모두 海東人이라 한다. 金 太祖는 黃海道 平山, 明 太祖는 慶南昌原(혹은 黃海道)⁽⁴⁾ 淸 太祖는 威北 會寧 出身이라는 것이다.⁽⁵⁾ 이러한 傳說에 대하여 그 事實與否를 밝히는 것은 本稿의 論旨에서 벗어나므로 여기서는 舉論 않기로 하겠거니와, 다만 金이나 淸 太祖의 경우에는 비록 이것이 事實이 아니더라도 事實로서 傳承될 만한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것 같다. 왜냐 하면 이들은 모두 漢民族이 아닌 女眞·滿洲族에 의하여 建立된 나라로 당시 그들의 세력권이 이 땅 北地에까지 미쳤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明 太祖의 경우는 전혀 가당찮은 것이 분명하니, 그는 中國에서 南方인 安徽省 鳳陽縣 濠洲 出身인 것으로 나타난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전혀 상관도 없는 朱元璋의 韓半島 誕生 說話가 이 땅에서 傳來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된 일일까?

뿐만 아니라, 朱元璋 誕生說話에는 李成桂의 誕生이 불가분의 관계를 지니고 연결되어 있음을 본다. 그러나 和寧府 出身의 李成桂와 中國 淮河邊 出身의 朱元璋의 誕生地가 혼동되어질 역사적 근거는 발견되지 않는다.

그러면 비록 事實은 아니더라도 그러한 說話가 胚胎되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이러한 문제 즉, 李成桂—朱元璋 說話(以下 '李—朱 說話'로 省略하기로 함)의 형성 원인을 摸索하려는 것이 本稿의 첫째 목적이다. 그리고 그 基底에 깔려 있는 天命思想을 歴史的으로 考察

(3) 湖岩全集 卷三 p. 20에 의하면, 李成樑은 平北 渭原郡人으로 일찍 殺人罪을 犯하고 亡命하여 遼東에 갔던바 明末 風雲을 타서 累進하여 그 位가 장군에 이르렀다 한다. 熱河日記에 의하면 최초 入明한 者가 成樑이 아니라 그 先祖英이라고 한다.

(4) <張伯傳>(世昌本 p. 36)에는 “東國人”, <柳文成傳>(世昌本 p. 37)에는 “朝鮮 黃海道 平山人”으로 되어 있다.

(5) 孫晉泰, 朝鮮民族說話의 研究(1947) p. 72.